

킹덤 이코노미의 개념 세우기

KINGDOM ECONOMY CONCEPTUAL FRAMEWORK

성경적으로 통합된 경제 시스템

손준원 지음

Acknowledgements

이 책자는 경제와 비즈니스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씁없이 노력하는 리더들과 크리스천들의 오랜 고민들을 담았습니다. 저자의 생각을 다듬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기초가 된 연구는 호주의 *Convergence House of Prayer (CHOP)* 와 한국의 *Heritage HM Asia co., Ltd. (Heritage Asia)* 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Contact: junshon@heritageasiagroup.com

August 2021

Copyright © Jun Won Sho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publisher.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자나 출판사의 동의 또는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복제, 광전자 매체 수록 등을 금합니다.

First published 2021

Printed in Republic of Korea

들어가는 말

나는 준원의 글을 기쁨으로 추천하고 싶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가 “부의 창조”와 “부의 분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독자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부의 창조는 서양식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부의 분배는 사회주의자들과 인도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졌다. 양쪽 모두 부분적으로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성경을 연구하는 참된 학자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고, 당시에 손해를 입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당신께서 하신 일을 따르도록 가르치셨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가 만약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고안해 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그들의 존엄성에,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제공하는 데 본질적인 일이 된다.

준원은 하나님의 희년의 법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려주고 있다. 희년의 개념은 우리의 주목을 요구하는 몇가지 흥분되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이 원리들을 실천에 옮기는 공동체들을 찾아내고, 그런 공동체들이 어디서나 확산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다.

하나님의 창조적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새롭고 혁신적인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시도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Rev. Dr. John D. Tanner
(L.Th, M.Th, D. M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킹덤 이코노미의 개념 세우기

성경적으로 통합된 경제 시스템

손준원

목차

Part 1. 복잡한 시스템과 힘든 전쟁	3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반응	3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접근	4
참여할 이유가 있는 전쟁	5
Part 2. 성경적 원리들	6
시작점	6
경제 시스템의 기초	6
경제 시스템의 두 기둥	8
경제 시스템의 두 가지 기능	10
Part 3. 하나님 나라 경제의 개념 세우기	16
패러다임 전환	16
총체적 미션의 관점	17
하나님 나라 경제를 향해서	18
하나님 나라 경제의 회년 모델	19
Part 4. 결론	26
실재하는 하나님 나라 경제	26
후속 연구 주제들	29
참고문헌	30
Notes	31

PART 1. 복잡한 시스템과 힘든 전쟁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반응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제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바는,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complex system*)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계(系)'라는 용어는 기계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진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타락(*the Fall*) 사건의 영향으로 이 시스템의 복잡성은 하나님의 창조때 담겨진 선한 원안 그대로의 설계를 거역하는 무질서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신적 설계에 대한 거부로 비롯된 생겨난 현실의 파탄은 모든 경제 활동 속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경제적 불의들이 구체적이고도 철저하게 이 무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복잡한 세상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good news*)입니다. 이런 복잡성의 이중 현실 속에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복잡계'에 반응해 왔습니다. 바로, 사회적 진보를 향한 자율성(*autonomy for societal progress*)에 대한 선택과 종교 의존적인 반응입니다.

한편으로, 자율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실험해 왔습니다. 이 실험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경제와 정치 시스템은 특별히 16세기 이후 부터 자율성을 확고한 전제로 삼아 발전되어 왔습니다. 국제 상거래의 등장은 바로 이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기관들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일례로, 중세 서양에서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 공공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양에서는 고대 역사 속에서 불교가 왕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권위 시스템은 기업 운영 활동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응들을 제외한다면, 오늘날 많은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에 각기 다른 무게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본주의(*capitalism*)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역사 속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물을 동시에 양산하면서 다양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본주의의 다양

한 영향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점은,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나 극심한 빈곤과 같은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역효과를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회 공공과 민간 영역의 지도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세속화되고 타락한 개인이나 조직 또는 국가에게 비난을 떠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대답이 현재 무엇이든지, 현대 시스템의 이중성에 반응하는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다르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접근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을 고통스럽게 겪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은 순전히 인간의 건강 문제이지만, 실제 전 세계 경제 침체와 같은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엄청난 위기만이 아니라, 현대 경제는 시간을 지나면서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늘 노출되어 왔습니다. 20세기만 해도 제 2차 세계 대전이나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문제들을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란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우리의 세상은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듯이, 정부, 경제, 가족, 개인은 서로 복잡하게 엮여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모든 인자에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반응은 때로는 무작위로 일어나고, 때로는 어떤 특정한 결과들이 순서를 지니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제를 경제적 해결책으로만 다룰 수 없는 까닭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이전보다 더 주장하는 편이지만, 더이상 경제는 경제적 대안으로만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업문제, 부채와 이자율, 가족 붕괴, 불평등 이슈, 그리고 환경 재앙등이 바로 그 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¹.

한걸음 더 나아가면, 겉으로 드러난 경제 이슈들은 빙하와 같아서 그 이면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 교회는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돈에 대한 우상적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상업의 역할을 상당히 제한했습니다². 만약 21세기에 사는 기독교인이 같은 가르침을 강요받아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기독교인은 현대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이슈들을 파악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세상에서 쓰는 이성적 접근법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현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점이 앞으로 다루게 되는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이슈들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을 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슈들은 시스템적인 도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문제들로 부터 도망가거나 세속적 질서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됩니다³. 오히려, 장애물을 직면하면서 성경적 지혜를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할 이유가 있는 전쟁

여기에서, 여러 질문들이 머리 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답변들을 찾는 것이 진정 가능할까? 개인 비즈니스나 부패된 시스템 현실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속에서 실제로 성경적 답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만 하는가?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만약 이런 종류의 질문들로 혼란스러웠다면, 반가운 소식은 역사와 세상 속에서 당신만 이런 전쟁터에 홀로 참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질문과 어려움을 겪었던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이미 온갖 수준으로 긴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이고도 실천적인 치료제를 찾고자 씨름했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는 19세기 초에 횡행하던 노예 거래 시스템의 악독을 제거하고자 헌신하여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학계와 재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신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성경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기계의 매뉴얼이 아니어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세세하게 대응방안을 나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 경제 시스템의 오류를 고치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절 한절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명제적 진리의 집합체인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선하고 의로우며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모델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원리들을 따라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경제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성경적 비전과 대안을 향해 구체적인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PART 2. 성경적 원리들

시작점

하 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성품)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창조 세상에 대한, 사랑에 기반한 하나님의 뜻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도록 최초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창조된 세계 속에서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때와는 다른 현실 속에 처해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하여 이 부패된 세상을 구속(*redemption*) 하기 위한 길을 최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을 이루는 목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서는 역사 속에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적인 성경의 서사(*narrative*) 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성경의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제 시스템의 기초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성경적 경제를 바라보자면, 이 시스템의 기초는 단연 일(*Work*) 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제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특정 철학, 도덕적 전제, 영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경제는 인간 노동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에 대한 인식은 건강한 경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일을 가치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쉬지 않고 계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일은 지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the Creator*), 지속자(*the Sustainer*), 구속자(*the Redeemer*), 완성자(*the Consummator*) 입니다⁴.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진리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에 나와있는 창조 사건 이야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일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의 동반자(*co-creating partner*)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⁵.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든 창조성을 요구하는 우리의 일은 두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성(*creativity*)은 인간의 이성(*mind*)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God's image*)의 증거입니다. 둘째, 인간의 다양한 직업속에서 창조성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회가 다같이 수용할 만한 것입니다.

지속자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리(*maintenance*)’란 추상적(*metaphysical*) 이거나 경험적(*empirical*)인 세상 모두에서 필수적인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물은 그(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있다”(골로새서 1장 17절)라고 설명했듯이, 우리의 우주는 질서 정연한 코스모스(*cosmos*)입니다⁶.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눈에 보이는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험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이나 조직 또는 사회, 그 시스템을 관리 지속하는 일은 모두 “주님의 일 (*the Lord's work*)”입니다.⁷

구속자 하나님. 모든 손상된 것(*broken thing*)은 하나님의 일로 인해 구원(*redeemed*)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손상 입은 세상을 고치고(*fix*), 낫게 하고(*mend*), 변화시키는(*transform*)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⁸.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과 압제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그로 인해, 이 신적 속성을 따라 행하는 모든 구속적인 일은 희망과 사랑과 정의와 의를 드러내기 위해, 시스템의 결함을 고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증거적인 측면이 이 구속하는 일의 이면에 담겨 있습니다.

완성자 하나님. 모든 인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완성 사역(*God's consummating work*)에 의해 놀랍게 결론짓게 될 것입니다⁹.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그날에 얻게될 영광스러운 결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의 의미를 찾아주는 일이나 사람들을 성숙으로 이끌어 주거나 인생의 완성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일들이 우리가 행하는 완성 사역(*consummating works*)이라 할 수 있습니다¹⁰. 이런 완성시키는 사역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일부 엿볼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주님의 테이블(요한계시록 19장)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한 영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창조자, 지속자, 구속자,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반영하는 참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일이 무엇이 좋고 의로운 일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좋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성경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시스템이 실현되는 것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에서 살펴본 성경적 기초 위에 시스템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경제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경제 시스템의 두 기둥

좋은 일이란 위의 4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하듯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의도임이 나와있습니다. 관계성(*relationality*) 과 대리 통치(*regency*) 입니다¹¹.

관계성. 관계성이란 공동체 건설자(*community-builders*) 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¹².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공동체를 만들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의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 에서 나오듯이, 인간은 사람과 자연을 잘 돌봐서 창조 세계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끌어올리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¹³.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관계성은 3가지 측면에서 안식의 조화(*three-fold sabbath harmony*) 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창조세계 그리고 인간이 함께 이루는 조화를 의미합니다¹⁴. 이 최초의 부르심은 현대를 살고 있는 인류에게도 여전히 유효



한 것입니다. 인간이 현대에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현상은 손상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이웃들 사이의 관계가 손상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비정상적인 역효과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현대 경제 체계안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이슈들이 그 구체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업, 부채와 이자율, 양극화된 부의 분배,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로 인한 비용과 같은 문제들은 창조 때의 조화로운 관계가 역행되어 생기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현상들에 대해 익숙해져 있고 그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도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각 시스템의 기술적 요소들이 지닌 문제들만 접근하는 것이 주된 해결책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스템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상호관계성에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운동을 보면 창조 세계와 인류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사고가 점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나 글로벌 범위 할 것 없이, 현대 경제 내에서 그 기술적 구성요소들과 주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합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좋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관계성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리통치. 이 시스템의 다른 기둥은 대리 통치(regency)입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같은 이해에 따르면,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이나 현실에서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창조하고 유지시키고 구원하고 완성시키는 일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을 때,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믿음과 세속의 구분이 없는)를 만들어가며,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면서 창조세계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창세기 1장 28절) 동시에 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창세기 2장 15절)¹⁵.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통해 이 책임을 완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도록 그 권위를 부여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현대 시스템은 자율(autonomy)과 왕의 대리 통치(regency) 사이의 전쟁터 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 경제 발전을 위해 인류는 자율을 선택하면서 돈과 부를 섬기는 맘모니즘(Mammonism)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사회 시스템 내에서 관계성의 파괴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수용한 결과는 창조적 청지기의식(creational stewardship)을 인격안에 내재화 시키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대리 통치는 하나님과 창조세계 그리고 인간의 안식적 조화(sabbatical harmony)라는 기대치 못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 줍니다. 비록 불완전한 현대 경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경적 대리 통치를 적용해

나가면 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주체들이 함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제고, 조직이나 시장에서 비용 대비 높은 효과의 소통,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 순환 경제 등과 같은 효과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성과 함께 대리 통치는 유익한 경제 시스템을 이루는데 있어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창조 세계와 인간 공동체를 위한 모든 종류의 좋은 일의 결과물은, 관계성과 대리 통치의 채널을 통해 경제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그 결과물들이 전체 시스템에 특정한 방식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시스템입니다.

경제 시스템의 두 가지 기능

부의 창조와 부의 분배. 일반적으로, 노동은 자원, 자본, 또는 땅이라는 요소와 함께 연결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지지받는 일은 관계성과 대리 통치의 채널을 통과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에 좋은 가치를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는 부를 창조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따라서, 부의 창조(wealth creation)는 효과 있는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부의 창조만이 경제 시스템의 유일한 원동력이 된다면, 더 큰 이익을 향한 관심이 시스템 작동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스템 전체의 지속성과 건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라마다 정도를 달리하지만 경제 시스템의 균형을 잡기 위해 공공 개입 정책이 실행되는 지점입니다. 이를 통해, 부의 분배(wealth distribution) 또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다른 바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창조와 분배라는 시스템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부의 창조에 대한 성경적 기초

부의 창조(*wealth creation*)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세속적인 주제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은 부의 창조는 유혹(*temptation*)이고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라는 전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¹⁶. 하지만, 이런 편협적인 관점은 인간의 부패된 본성을 바탕으로 부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창조 사건에서 나오듯이, 창조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이성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지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을 바르게 유지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최초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를 창조하는 일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격려받아야 합니다.



부의 창조에 대한 또 다른 기독교적 관점은 최근에 발전되어 왔습니다. 클리브 라이트(*Clive Wright*)가 이에 대해 잘 정의했는데, 부의 창조는 “필요(*needs*)와 욕구(*wants*)가 충족하는 지점으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¹⁷. 수많은 경제 활동들은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에서 생산과 매매 교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주체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가운데, 부는 무작위적으로 생성되고 배가됩니다. 따라서, 부를 창조하는 것은 순전히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시장 활동들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에 더하여, 라이트는 부의 창조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¹⁸.

- 구약은 일반적으로 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도덕적 경제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약은 자율과 자만으로 이끄는 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18절).
- 예수님께서도 맘몬(*mammon*), 즉 재물의 우상화를 경고하셨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 비즈니스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일상의 부분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많은 내용들 중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용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선언하신 것은, 물질 세계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며 그것을 탐구하고 발전시킬만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인간은 계속되는 창조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제한된 자유이기는 하지만, 선택의 자유와 창조성 그리고 부를 창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질들을 부여하셨습니다.
- 의심할 여지 없이, 죄는 부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는 탐욕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부의 분배 또한 불평등하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평등을 성취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는 모든 불완전한 시스템들 가운데 최선입니다.
- 인생 전체와 한 사람 전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를 보면, 오용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의 창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을 넘어서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돕고 빈곤을 제거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는 오직 우리 이웃들의 필요와 요구를 섬기는 방향으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택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곤을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인 부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조건이 다르므로 모순은 존재합니다. 탐욕과 같은 우리의 이중적인 동기들을 잘 이용해서 빈곤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욕구라는 동기를 섬김으로 바꿀 때, 이 모순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이전의 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식사는 다른 누군가의 배고픔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로 재화를 만들어내는 인류의 생산 능력은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새로운 “무중량경제(*weightless economy*)”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인류를 위해 재화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능력은 인류의 생산 능력과 비등해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부의 창조에 관한 양면성을 모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부의 창조는 인류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시스템의 진보를 이끌어내는 좋은 것입니다. 도덕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을 지닌 주체들이 시스템을 하나님과 인류를 섬기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때에 부의 창조는 좋은 것이 됩니다. 단지 부 자체에 대한 무한한 추구는 전체 시스템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시스템의 주체들은 부의 창조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이 과정(*process*) 이지, 물질적인 부 자체가 아님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부의 창조 과정 중에서, 각 주체들은 경제적 가치를 생성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제가 나아가는 방향을 함께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가 창조되고 건강한 경제가 유지되도록, 부의 분배가 효과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부의 분배에 대한 성경적 기초

경제를 운영하는 또 다른 바퀴는 부의 분배(*wealth distribution*)입니다. 부가 생성된 후, 상대적 크기의 부가 경제 시스템의 서로 다른 부분에 흘러들어 갑니다. 부의 분배는 부의 창조에 비해 경제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경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성에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부의 창조에 대해 널리 알

려진 문화적인 인식과 같이, 부의 분배는 마치 경제 시스템의 기술적인 요소일 뿐이며 부정적인 인상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등과 부채의 이슈들은 현대 경제의 문제로 잘 알려진 예들입니다. 이와 같이, 부의 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은 시스템의 단점으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부패된 의도와 그들의 실행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독과점은 부의 분배를 제한시키고 경제 성장을 퇴보시킵니다. 그래서, 부의 분배는 올바른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사회적 경제적 불의를 발생시키는 동기들과 행위들에 대해, 자세하게 구별하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악한 방법으로 부를 생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의 착취는 강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특별히 경제 시스템에서 약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이나 지주들과 같이 사회 특권층은 공정한 지분을 통해서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보호망이 없는 사람들을 관대함(*generosity*)으로 대해야 합니다. 일례로, 추수 시기에 농작물을 일부 남겨두는 장면은 구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의 분배에 대한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희년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기 25장).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법에 따르면, 땅과 노동 그리고 자본과 같이 언약 공동체 내에 유효한 경제적 자원들은, 사회적 경제적 힘이 있는 특정 개인이나 가족들이 장기간 예측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금지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사회의 특정인들에게 쏠린 과도한 부로 인해 가족의 분리 또는 해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부의 분배를 통해 가족과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경제 시스템 내에서 생성된 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신 것이 좋은 예가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경제의 기본 요소인 토지와 같이,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공동체적 평화(*communal peace*)가 회복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희년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와 경제적 불의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경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의로운 부의 분배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공동체의 관계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의 분배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가 잘 정의했습니다. 쉐퍼는 성경적 관점의 부의 분배에 대해 ‘축적된 부의 배려있는 사용(the compassionate use of accumulated wealth)’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¹⁹. 이는 부의 분배에 있어서 개인이나 조직이 공익을 위해 행하는 소비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절제(self-control, 갈라디아서 5장 23절)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 소비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잉여 수익을 나누게끔 도와줍니다. 위에서 다루었듯이, 가난한 자들이나 도움받을 길이 없는 약자들을 돕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이 영역에 포함됩니다. 생계의 압박을 풀어주는 부의 분배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의 전통적인 모습으로는 재정이나 노동력의 직접 기부 형식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드러난 기업 경영 분야의 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부의 분배에 있어 투자적 측면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이는 부의 분배가 창조 세계와 경제 주체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윤리적 투자 결정이어야 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에 바탕을 둔 결과입니다. 또한, 이런 부의 분배 태도는 경제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낳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부의 분배는, 기독교인이나 세속적인 반응들이 모두 공유하는 바입니다. 최근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구분 없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가 운동은 이런 측면을 나타내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적 측면이나 투자적 측면 모두에서 부의 배려있는 사용은, 축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경제 시스템 내부 주체들의 윤리적 기준과 그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의 사용이 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성경에서 지지하는 경제의 모습을 시스템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창조자, 지속자, 구속자, 완성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피조물들과 더불어 안식의 평화를 회복하는 당신의 원대한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관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재성을 드러내는 대리 통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성(Relationality)과 대리 통치(Regency)의 접근법을 통해 모든 좋은 일들의 결과물을 흘러가게 함으로서 건강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런 성경적 기초와 기둥들이 세워진 후에, 경제 시스템은 부를 창조하고 분배하는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내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도덕적으로 지지받는 부의 창조는 본질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 도덕성은 바른 영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정의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끄는 부의 분배는 공동체의 안전성을 확고히 합니다. 이는 또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상에서 성경적으로 지지받는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스템적 구조는 아래의 그림 1. 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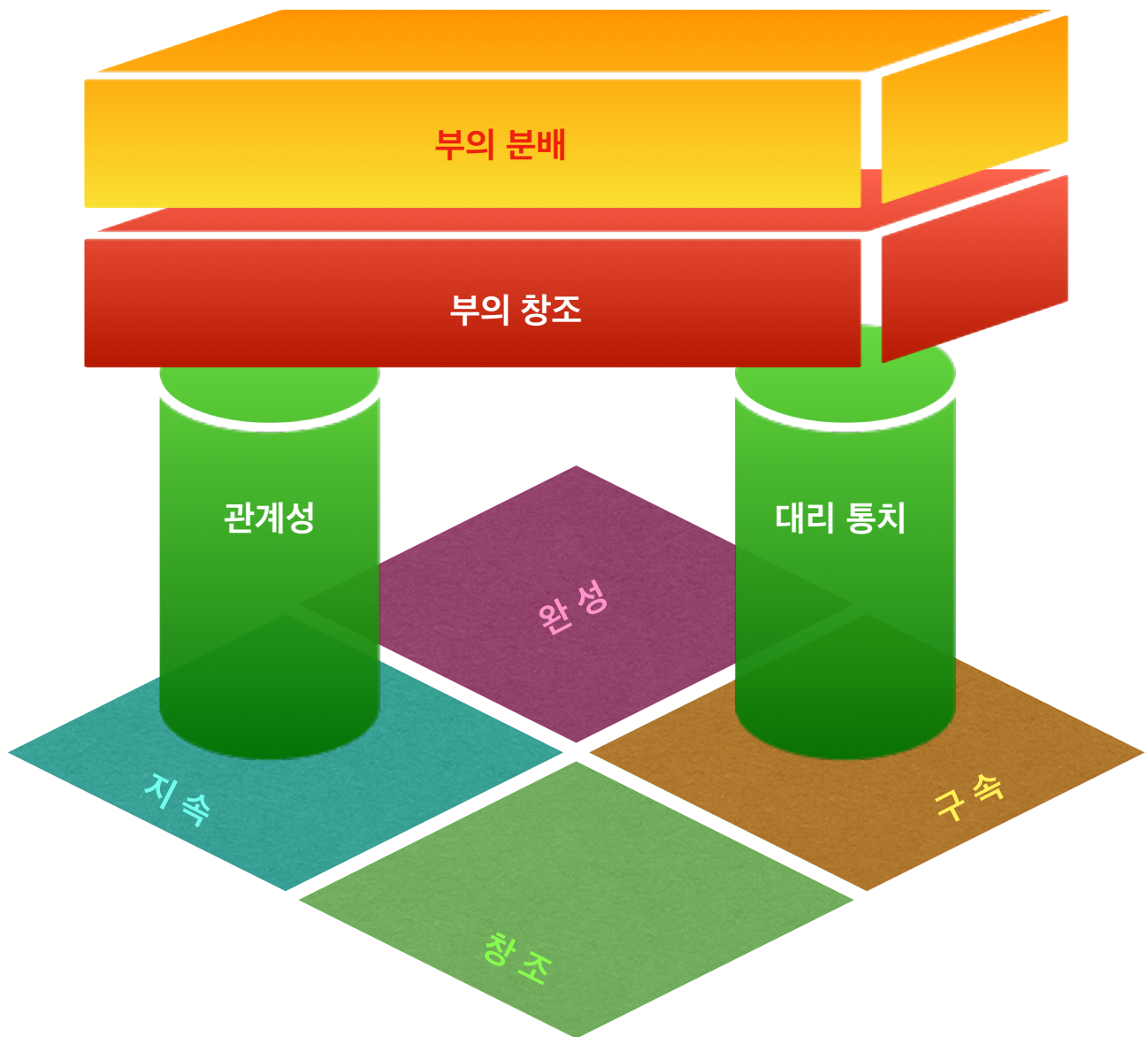


그림 1. 성경적 경제 시스템 (*Biblical Economic System*)

PART 3. 하나님 나라 경제의 개념 세우기

패러다임 전환

성경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를 가르침과 동시에,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원리들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길을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일관성은 현실의 총체성(*the totality of reality*)을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공해 줍니다²⁰.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고 선언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도전하는 곳입니다. 이원론(*Dualism*)의 관점은 우리의 세상과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외부적 힘이나 존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우주는 자연 법칙만이 지배하는 닫힌 체계(*Closed System*)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역사와 우주에 간섭할 수 있는 열린 체계(*Open System*)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²¹. 이 성경적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경제를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재설정 또는 재정립 해야 합니다.

위에서 다루었던 논의들은, 성경적 패러다임이 현대 경제에 만연되어 있는 패러다임과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경제의 패러다임은 르네상스(*Renaissance*)와 계몽주의(*Enlightenment*) 사조에서부터 형성 발전되어 왔습니다.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여 경제적 가치를 생성함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적합한 방식과 구별된 생각으로 우리 사회에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전체 목적과 과업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하나님의 미션(*the mission of God, missio Dei*)이라고 부릅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성경적 원리들은 경제 영역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 나타난 사랑에 기반한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 세상과 인간의 일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완벽한 통치였습니다. 이상적인 경제 시스템도 그 창조 세계의 일환이었습니다. 의로운 부의 창조와 분배가 가능한 완벽한 시스템

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창조 세계가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고, 공동체가 함께 모든 좋은 일의 결과물을 기쁨으로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Kingdom Economy)를 표현하는 완전한 그림입니다. 하나님 미션의 총체적인 모습은,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역사 속에서 실현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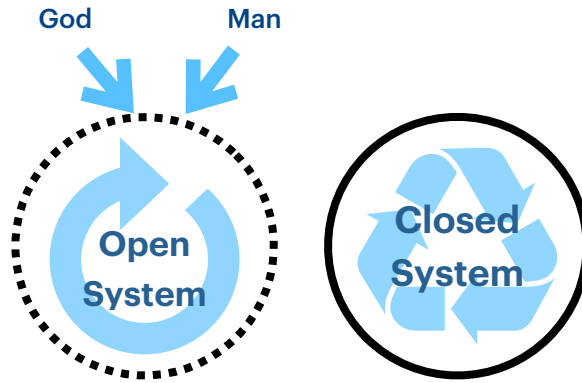


그림 2. 열린 체계(Open System) vs. 닫힌 체계(Closed System)

총체적 미션의 관점

총체적 미션의 관점(*holistic missional perspective*)은 경제적 해석(*economic interpretations*)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최초 부르심은 창조적 청지기(*creational stewardship*)입니다²². 그 부르심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천연 자원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과 함께, 모든 일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힘에 의해 지배되어 버린 경제 시스템의 모든 역기능은 바로 자원을 추구하는 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grace*)와 선물(*gift*)인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회복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칙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요구합니다²³. 이 원리를 경제에 적용하면 경제 주체들의 도덕성 회복, 사회적 돌봄과 공동체 안전성을 위한 투자, 일과 삶의 균형을 가져오는 안식의 실천, 공동체 중심적 재정 정책 등과 같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전체를 부르셔서 당신의 미션을 끈기 있게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미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식의 샬롬(*Sabbath shalom*)에 있습니다. 이 안식의 샬롬은 하나님, 창조 세계, 인간의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조화(*the threefold harmony of God, creation, and humankind*)를 의미합니다²⁴. 무엇보다도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션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²⁵. 그러므로, 하나님의 총체적 미션의 경제적 해석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기인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를 향해서

성경적 경제 시스템에서 보여주듯이(그림 1. 을 보라), 하나님 나라 경제는 시스템의 각 단계에서 성경적 원리들을 확립해야 합니다. 비록,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개인적이거나 단체적인 노력을 방해하더라도 말입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원리들을 각 단계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영적, 도덕적, 정신적(감정적), 문화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에 해당하는 일의 영역에서부터 왜곡되면 그 이후의 결과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일은 관계적(*relational*) 이지 기계적(*mechanical*) 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과의 그리고 자연과의 건강한 관계는 일의 생산성, 효과성, 효율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성과 대리 통치의 채널에 중심을 맞추는 것은 비즈니스를 다르게 행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결과로, 부의 창조와 분배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세워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 활동에 성경의 가르침들을 활발히 실천하는 체계적이고 관계적 과정(*systematic and relational process*) 을 통해 하나님 나라 경제는 세워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션의 관점에서 보면 4가지 성경적 테마들이 하나님 나라 경제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문화명령(*Cultural Commission*), 모든 민족을 축복함(*Blessing all the nations*), 성령강림(*Pentecost*), 새예루살렘(*New Jerusalem*) 이 하나님 나라 경제의 특징입니다²⁶. 이미 살펴보았듯이, 문화명령(창세기 1장 26~28절) 은 창조적 청지기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적 청지기란 인생과 창조 세계에대한 청지기 의식을 말합니다²⁷. 이 명령은 창조의 원목적을 성취하고 다양한 형태의 번영(재정적인 부만을 의미하지 않음) 을 통해 인간 공동체가 번성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창세기 12장 1-3절) 은 전 세계에 있는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 안에서 인류를 축복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선언하셨듯이, 모든 종류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세상에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압박에서 풀려난 경제적 자유와 이웃들과의 경제적 평화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 얻게 되는 직접적 결과입니다.

성령 강림(*Pentecost*) 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고유의 다양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됩니다²⁸. 또한, 이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잃게 됨으로서 이기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시도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한 연합성과 다양성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예루살렘(요한계시록 21장) 은 하나님의 미션의 완성이로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공동체에 가득차게 되어, 그곳에서는 눈물과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 모습은 아마도 이 비전과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적(*international*) 이고 다민족(*inter-ethnic*) 적인 공동체에서, 그들이 이룬 모든 좋은 일들의 결과



들을 부족함도 재앙도 없이 서로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경제(*Kingdom Economy*) 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목적이 미션의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일치되는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이 원리들을 적용하는 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경제는 오늘날 우리가 완수해야 할 과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션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친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례로서, 비록 많은 경우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실험들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안에서 시도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 나라 경제의 모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희년(*Jubilee*) 은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의 희년 모델

이 땅에서 모델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법들을 순종하면서 참된 선함과 축복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희년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법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함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거룩함은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이 의로운 영성은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공동체에서 실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법들을 불순종할 때, 전체 공동체는 다양한 종류의 불의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통화 거래를 부정으로 조작하고, 일부만 땅을 축적하게 되고, 가족이나 집안에서 대대로 유산받은 땅이 빼앗기는 등의 부정이 횡행했습니다²⁹.



이와는 대조적으로, 희년의 법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복지와 번영이 회복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희년의 법에서 경제적인 명령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³⁰:

- 하나님께서는 단위 가족들에게 땅을 밟고 맡기시면서, 그들의 토지 소유권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임).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 하셨습니다.
- 만약 땅을 팔아야 한다면, 거래가 가능한 부분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임대기간에 대한 권리만 가능했고, 궁극적으로 그 땅은 원소유 가족에게 반드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 채무를 가지고 있거나 급여를 받는 노동자로 강제로 처해진 사람들은, 채무를 면제받고 자신들의 원소유인 토지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들이 사회에서 실현되면, 세가지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확대된 가족(*the extended family*)의 중요성이 확고해지고, 2) 이자를 금지하고 가족과 가족 소유의 땅의 영원한 분리를 금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제한하게 되며, 3) 이자를 금지함으로써 친족 집안 외부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단념시키게 합니다³¹.

위의 첫 번째 결과물이 강조하는바는, 국가 내에서 확대된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확대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building block of society*)입니다³². 이는 작은 공동체의 기본 단위기에 확대된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안전성은 국가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 요소에 의해 근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가족의 생계는 유산으로 내려오는 땅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자율 때문에 갚지 못하는 빚이 그 가족이 소유한 토지를 소유 가족으로부터 영원히 분리해서는 안됩니다. 한 가족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간 노예화나 토지 손실의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 번째 결과는, 이자에 대한 금지 조항을 통해, 확대된 가족 내부에서 구성원 서로를 돌보는 것이 강화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동체 자본의 이동성을 단념시키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자는 궁극적으로 가족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약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자본의 불평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법을 명령하심으로써 한 단위 가족, 확대된 가족, 공동체, 국가의 경제적 자유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성을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이에 더하여, 이 명령들 안에는 구약의 4가지 대표 경제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1)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 2) 확대된 가족과 생산 수단 사이의 강한 연계, 3) 공동체와 친족들에게 이자를 포함한 대출을 강력하게 금지, 4)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채무의 면제와 삶의 재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³³.

그 중에 첫 번째 원리는 희년 경제가 이스라엘 국가에서 실현가능한지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생산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천연 자원을 포함하여 토지에서 생산한 것으로 얻는 이익은 부의 생성에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이 법은 창조 세계안에서 인간의



역할인 창조적 청지기 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토지나 천연 자원에서 얻은 부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소유인 세상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지와 관련된 부의 창조와 분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수용해야만 합니다. 땅은 사회에서 소수가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 소유권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가족 중심적인 경제 주체들과 생산 수단 사이의 의로운 관계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에 따라 부가 적합하게 생성되고 분배될 때, 노동 효과와 생산성은 극대화 될 수 있는데 바로 땅과 공동체 사이의 조화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점들은 공동체 복지 발전에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공동체 복지가 발전하면서 사회 불만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를 따르게 되면 공동체 중심적이고 도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시스템은 배려있는 부의 사용을 격려하여 경제 주체들과 공동체를 위한 투자 활동들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자리를 만드면서 노동력을 증가 시키고, 자본 분배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업 윤리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문화적 부산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동체 내에 생성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의 원리와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즉각적이거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관대함 (*generosity*) 을 문화와 경제 속에서 정착시키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희년 법은 희년이 되면 국가 전체에 걸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채무 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소유한 토지의 권리도 함께 회복하도록 명령 합니다. 빚진 사람의 후손 누구라도 선대의 채무에 의해 발생한 노예화나 노동력 제공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는 분명한 목적을 띤 사회 경제적 자본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투명한 시스템입니다. 단지, 공동체 차원의 은혜로운 돌봄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공동체 개발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주체들에게 미래를 향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와줌으로써, 개별 주체들의 비즈니스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희년 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고려할 부분은, 현대 경제 시스템 환경 속에서 이 법의 적용 가능점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하나님 나라 경제는 성경의 원리들을 현대 경제 세계 안에서 해석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는 희년은 고대 이스라엘의 실천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겨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목표들을 담은 패러다임이라고 제안했습니다³⁴. 우리 현대 시스템은 희년의 법들을 문자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하는 데 있어 충분히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적 배경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현대 시스템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희년 모델의 현실적 실현을 보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최선을 다해 그 원리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이란 진리

를 가져, 현대 시스템의 불완전성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 지혜로운 제안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루어진 분석 중의 하나는 희년 로드맵(*The Jubilee Roadmap*) 이란 주빌리 센터(Jubilee Centre)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³⁵. 그 보고서에는 희년을 중심으로 구약에 나타난 관련 법들을 다루면서 8가지 주제로 나누어 희년법의 적용점들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공동체, 가족, 재정과 경제, 부동산, 일과 휴식, 정의, 복지가 그것입니다³⁶. 그 경제적 관점의 적용점들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경적인 이상적 정부의 역할은 지방 분권적인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합니다. 정부의 과업은 지역 공동체들이 그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입니다. 큰 정부는 유지 비용이 높고 비효율적입니다.
- 가족이나 공동체가 특정 지역에 뿌리를 두고 살게 된다면, 구성원들간에 장기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원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를 두고 산다는 관점은 우리의 취업, 부동산, 재정,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는 한 개인이나 가족의 이동성과 책임감 감소를 장려해서는 안됩니다.
- 가족을 보는 관점은 취업이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족을 섬기고 지원하는 방향의 관계적인 접근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현대 가족의 분열은 높은 이동성, 이혼과 별거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개인과 조직 그리고 정부는 서로 함께 노력하여 상호간의 돌봄과 지원의 간격을 매꾸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재화는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곳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들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와 이자를 금지하고 편향적인 자본 축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빚은 절실한 도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아야만 합니다³⁷. 재정 투자는 가족과 공동체를 확고히 하는 것과 같이 관계적인 접근법으로 고려되어야지, 오직 가장 좋은 이자율을 쫓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 희년의 법은 경제적 독립성을 제공하면서 특정 지역에 뿌리를 두고 사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재정의 자금 자족, 가족의 뿌리성과 결속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³⁸. 특히, 정부는 세대를 걸쳐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족이 획득한 유산과 자본에 매기는 세율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³⁹.

- 성경적 안식일이 일에서부터 휴식을 강조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고 질 높은 가족간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하나님, 가족, 공동체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외 노동과 같이 돈을 추구하는 일에 대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 약자들이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성경의 법에 드러난 복지는 가난한 자와 도움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빈곤은 단순히 재원이 부족하다는 관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사회에서 지원의 네트워크가 빈약하고, 높은 이자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적 빈곤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⁴⁰.

위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희년의 법은 가족, 공동체, 국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활양식, 일, 문화, 경제 정치 시스템에서 거룩함을 지니는 것으로 가능해 집니다. 희년의 모델은 우리에게 현대 인간이 맞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패러다임을 통합한 사회 경제 시스템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ART 4. 결론

실재하는 하나님 나라 경제

우리는 두 왕국의 대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베소서 6장 12절)에 의해 지배받는 나라입니다. 현대 문화의 용어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사회 구조들과 정부와 경제 시스템들과 이데올로기와 마귀와 사단입니다⁴¹. 다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두움의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약속된 영원한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온 마음과 이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미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중에는, 기도(prayer)와 힘없이 고통을 받는 것(suffering powerlessness)과 변화를 일으키는 참여(transformative participation)와 때로는 기존의 것을 대체하여 바꾸는 것(replacement)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⁴². 사실, 우리는 역사와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여, 경제 시스템의 세속적이고 현존하는 질서와 맞붙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전략은 바로 이런 확고한 성경적 기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 경제(Kingdom Economy)는 현재 경제 시스템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케 하는 가장 중심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이또한 시스템과 같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기초와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두 가지 모듈들이 있습니다.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의 성경적 가치들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일이 시스템에 경제적 이익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로 인해 창조된 가치들은 반드시 관계성과 대리 통치의 채널을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일로 만들어진 결과들이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 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창조와 분배라는 두 가지 영역은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법칙들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각각 적용되어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모험적인 시도들이, 사회와 경제의 현존하는 문제들 안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 현상에 대한 단일적이고 부분적인 접근은, 서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주제들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경제 패러다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탁월한 용기를 안겨주어, 역사 속에서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실천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이 패러다임은 총체적인 미션의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 가운데 실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법이 다스리는 사회 경제 시스템의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불러 히년의 법들을 실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히년의 법은 공동체적(communal) 이고 관계적(relational) 인 원리들이 토지 소유권, 이자 금지, 확대된 가족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의로운 경제와 사회 활동들을 통해, 구별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축복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확립될 때에 영원하고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모험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경제의 새로운 모델들은 전세계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중요한 주제는 단회적인 연구를 통해 완성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 안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시작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그림 3. 은 최근에 개발 도상국의 배경 안에서 제안된 하나님 나라 경제의 모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3. 현대 환경 속에서 제시된 하나님 나라 경제 모델

후속 연구 주제들

이 책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 경제(Kingdom Economy)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성경적 개념과 그 적용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위에서 연구 주제의 시급성을 설명하였던 것처럼, 이 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은 불확실성과 난제가 가득한 현시대에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미션이라고 보여집니다. 후속 연구의 이점들은 현대 비즈니스와 산업계에서 일하는 크리스천 리더들과 실천가들을 전략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했습니다.

- 자본주의와 하나님 나라 경제의 비교 연구(Comparative study of Capitalism and Kingdom Economy)
- 하나님 나라 경제의 역사적 모델과 현대 모델들에 대한 사례 연구(Historical and contemporary models of Kingdom Economy: Case Studies)
- 하나님 나라 경제 - 현대 경제 원리들의 성경적 해석 연구(Kingdom Economy: Interpretation of Modern Economic Principles)
-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 - 의미와 동기 그리고 적용점들에 대한 연구(Kingdom Business: Meanings and Motivations and Applications)
-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 - 경영 원리들에 대한 연구(Kingdom Business: Management Disciplines)
-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 - 모델과 사례 연구(Kingdom Business: Models and Case Studies)

참고 문헌

Brandon, Guy, *The Jubilee Roadmap: A biblical foundation for relational societies*. Cambridge: Jubilee Centre, 2019.

Goudzwaard, Bob, *Capitalism and Progress*.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7.

Schaeffer, Francis A, *How Shall We Then Shall Live?: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Thought and Culture (L'ABRI 50th Anniversary Edition)*. Wheaton: Crossway, 2005.

Schaeffer, Francis A, *A Christian Manifesto*. Westchester: Crossway, 1982.

Stevens, R. Paul, *Doing God's Business: Meaning and Motivation For the Marketpla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6.

Wright, Christoper J. H.,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2006.

Notes

¹ Guy Brandon, *The Jubilee Roadmap: A biblical foundation for relational societies* (Cambridge: Jubilee Centre, 2019), *Part 1*.

² Bob Goudzwaard, *Capitalism and Progress*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7), *chapter 3*.

³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표준새번역 성경, 대한성서공회, 2001.

⁴ 같은 책, 6-7쪽.

⁵ 같은 책, 6쪽.

⁶ 같은 책, 6쪽.

⁷ 같은 책, 6쪽.

⁸ 같은 책, 6쪽.

⁹ 같은 책, 7쪽.

¹⁰ 같은 책, 7쪽.

¹¹ 같은 책, 6쪽.

¹² 같은 책, 6쪽.

¹³ 같은 책, 9쪽.

¹⁴ 같은 책, 62쪽.

¹⁵ 같은 책, 27쪽.

¹⁶ 같은 책, 108쪽.

¹⁷ 같은 책, 109쪽, *Cited by The Business of Virtue*, p. 47.

¹⁸ 같은 책, 109-110쪽, *Cited by The Business of Virtue*

¹⁹ Francis A. Schaeffer, *How shall we then live?* (Wheaton: Crossway, 2005), p. 114-117. 번역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의 말씀사, 2018) 159-162쪽을 보라.

²⁰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Manifesto* (Wheaton: Crossway, 1982).

²¹ Francis A. Schaeffer, *How shall we then live?* (Wheaton: Crossway, 2005), p. 146. 번역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의 말씀사, 2018) 212쪽을 보라.

²² Paul Stevens, *Doing God’s Business*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6), p. 82. 번역본은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를 보라.

²³ 같은 책, 84-86쪽.

²⁴ 같은 책, 87쪽.

²⁵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2006), p. 533. 번역본은 ‘하나님의 선교’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를 보라.

²⁶ Paul Stevens, *Doing God’s Business* (Michigan: Wm. B. Eerdmans, 2006), p. 111-112. 번역본은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를 보라.

²⁷ 같은 책, 82쪽.

²⁸ 같은 책, 112쪽.

²⁹ 같은 책, 114쪽.

³⁰ 같은 책, 115쪽.

³¹ 같은 책, 117쪽.

³² Guy Brandon, *The Jubilee Roadmap: A biblical foundation for relational societies* (Cambridge: Jubilee Centre, 2019), p. 10.

³³ Paul Stevens, *Doing God’s Business*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6), p. 116. 번역본은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를 보라.

³⁴ Paul Stevens, *Doing God’s Business*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6), p. 114. Quoted from Christopher J. H. Wright, *Living as the people of God: The Relevance of Old Testament Ethic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8), p. 89.

³⁵ Guy Brandon, *The Jubilee Roadmap: A biblical foundation for relational societies* (Cambridge, Jubilee Centre, 2019).

³⁶ 같은 책, 6쪽.

³⁷ 같은 책, 26쪽.

³⁸ 같은 책, 23쪽.

³⁹ 같은 책, 23쪽.

⁴⁰ 같은 책, 27쪽.

⁴¹ Paul Stevens, *Doing God’s Business* (Michigan: Wm. B. Eerdmans, 2006), p. 118. 번역본은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를 보라.

⁴² 같은 책, 117쪽.